

News

은행 예금금리 3개월만에 1.4%p 급락…머니무브 시동

아시아경제

예금 금리가 3개월 전 대비 1%포인트 넘게 떨어져 3%대 초·중반을 기록

예·적금 투자 상품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서 은행으로 시중자금이 쓸리는 '역머니무브' 현상도 둔화되고 있는 흐름

채권금리 하락, 가계대출 줄자…은행 여유자금 '껑충'

아시아경제

채권시장이 안정화되고 은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면서 은행들의 자금 사정이 나아짐

4대 은행 유동성 지표(LCR) 100% 넘어, 채권시장 안정 및 가계 상환액 늘어 자금 여유

PF·중금리 대출 연체율 꿈틀…부실 고리 예의주시

파이낸셜뉴스

PF 대출 연체 잔액이 1조원 돌파, 인터넷 전문은행의 연체율도 두렷한 상승세를 나타냄

중저신용자들이 몰린 인터넷 은행들도 기준금리 상승 여파로 연체율이 늘고 있음

만기 30일 '초단기 적금' 나온다…카카오뱅크, 신상품 출시 채비

한국경제

4월부터 만기 1개월짜리 초단기 적금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신상품 준비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새 적금 상품에 활용할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

한화손보도, 메리츠화재도 속속 참전… 운전자보험 시장 빅뱅

머니S

한화손해보험, 지난 1일부터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개정해 경찰조사단계부터 선임한 변호사비용 보장

경찰조사단계가 끝나고 실제 구속이나 기소절차가 이뤄져야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했던 것을 경찰조사단계부터 지급

채권 내다파는 보험사들…지난달 3.5조어치

한국경제

지난 1월 채권 13조5702억원어치를 매도하고 10조784억원어치를 매수해 모두 3조4918억원어치를 순매도

2012년에 대거 팔았던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작년 하반기 일제히 도래하면서 유동성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

자금시장 금리 내림세에…증권사 CMA 금리도 ↓

이투데이

대다수 증권사 CMA 금리 인하, 한국증권금융의 수신금리 가산 이율 인하에 따라 CMA 금리를 낮췄다고 설명

미래에셋증권은 9일부터 신규 매수와 재투자되는 발행어음형 CMA에 대해 변경된 금리를 적용

세계 최대 항셍테크 ETF, 국내 증권사서 팔린다…미래·삼성에 도전장

조선비즈

中 남방자산운용 자회사 CSOP, 다음 달부터 국내 증권사 통해 ETF 판매

세계 최대 항셍테크 ETF 등 4종, 기관·개인 대상 판촉활동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